

# 농촌노인생활지도사업 추진현황

농진청 생활개선과장 임평자

##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의 개선과 의학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농촌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농촌주민의 평균수명의 향상, 젊은 층의 이농에 따른 청장년층 인구의 격감, 출생율의 감소 등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 가족이 가지고 있던 노인부양의 책임과 기능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봉양해 오면서 자신들도 자녀중 누구에게겐가 부양받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은 거의 없이 자녀를 위해 모든 여력을 투자해 왔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화되어 부모 부양을 꺼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들은 "가난, 질병, 고독, 무역할"로 대별되는 4고(苦)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농촌의 노인들은 취학·취업 등의 이유로 이농하여 도시에 자리잡은 자녀들과 떨어져 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노인부부만 또는 단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힘에 붙이는 농업노동 참여와 건강문제, 고독 등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인 부양의 문제는 심각하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90년 60.3%), 평균수명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과 혼자서 노년기를 보내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농촌에서도 여성노인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현재 20%를 넘고 있으며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노인을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 2.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과정

이와 같은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93년부터 중앙시범사업으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일부 농촌지도소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 에 대한 교육과 부업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지침 시달 ('93. 3)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의 목적은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개발 지도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또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두었으며, 마을 수는 도의 크기에 따라 3 내지 4 마을, 제주도는 1 마을로 9개도에 총 30마을로 정하였다.

육성기간은 3년으로 잡아 1차년도는 마을선정, 실태조사, 사업계획수립, 마을민 인식 확산 등의 기반조성의 해로 잡고, 2차년도 구체적인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는 해로, 3차년도는 자주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마무리하는 해로 잡았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요령을 마을 및 지도대상 선정기준, 실태조사 요령, 지도계획 수립 및 사업실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과 또 처음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꼭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나 방법들을 규정하지 않고 마을과 노인들의 여건, 그들의 희망내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어 지침을 작성하였다.

특별히 유의사항으로 노인들만에 의한 사업추진보다는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부 대표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것과, 되도록이면 행정기관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선정 결과 ('93. 5)

각도 진흥원에서는 도내 여러 군 중에서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적합한 시군을 선정하고 각 시군에서는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여 그 마을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보고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처리를 포함하여 총 30마을로, 이들 마을의 60세 이상 총 노인수는 1,844명으로 마을당 평균 61명이었으며, 이들 중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209명이고 마을당 평균 40명수준으로 전체 노인의 65.5%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주요사업 희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강증진활동(건강관리실 설치, 체조교실, 건강진단 등) : 25마을 (83%)
- 소득활동(소가축사육, 공동육묘, 농산물재배, 수공예품제작 등) : 23마을(77%)
- 마을가꾸기 봉사활동(마을환경정비, 폐품수집, 꽃가꾸기 등) : 13마을 (43%)

- 교육활동(부업기술, 노인역할, 생활관리, 취미과제 등) : 13마을 (43%)
- 젊은 세대와의 교류활동(경로잔치, 고부회, 마을단합행사 등) : 9마을 (30%)
- 전통문화 전승(민속놀이, 농악, 민요, 전통요리 등) : 7마을 (23%)
- 기타 : 서당운영, 합창단 운영 등

## ○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94. 1)

마을 및 노인들에 대한 개략적인 실태조사와 희망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도소의 예산과 마을의 여건을 고려하여 1차년도에 추진한 사업결과는 처음에 기초적인 기반조성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한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연인원은 총 4,140명이었고, 지방비 5,600만원, 자부담 4,300만원 등 총 9,9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30마을 중 24마을(80%)에서 노인 교실을 열었는데 68회에 걸쳐 2,185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건강관리, 생활설계, 가족관계, 노인의 역할, 영양관리, 여가관리, 취미과제, 전통민속놀이, 환경오염방지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증진활동이 많았는데 건강관리실을 13마을(43.3%)에서 설치하였고, 마을공동휴식터를 4마을(13.3%), 게이트볼장을 1마을(3.3%)에서 설치하였으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10마을(33.3%)에서 12회에 걸쳐 521명이 건강진단을 받았다.

노인공동부업활동은 10마을(33.3%)에서 298명이 참여하였는데, 노인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로 벚나무, 두충나무 등의 묘목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외에는 짚신, 돛자리 등의 전통수공예품 제작, 연등조립, 흑염소 사육, 농산물 건조, 명태포 찢기 등이었다.

그리고 경로잔치, 효도관광, 고부회 운영 등의 젊은 세대와의 교류활동이 13마을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을환경정리, 청소년교실 운영 등의 봉사활동이 9마을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4마을에서 농악단 운영, 시조경창 등의 전통문화 전승활동이 이루어졌고 노인회 합창단을 운영한 마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중앙단위 노인생활지도마을 30마을 육성사업외에도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생활지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고부회 개최, 노인단독 가구 수시 방문지도, 예절·한문교실 정기운영, 노인교양강좌, 고부가 함께 하는 기능

경진, 화목한 농가생활 교육 운영, 각종 생활문화 전승 등 지역의 여건에 맞춰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사례 및 효과

노인지도활동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13마을에서 수집하여 보았는데, 활동의 효과는 다양하고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처음에 부업이나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면서도 노인들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냈으면 됐지 또 무슨 일이나고 텅명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언가 할 일을 찾아 해 보겠다는 자세였고, 그렇게 하여 처음에는 마을안길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젊은이나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소하신 마을 길에 함부로 휴지를 버리지 않게 되어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까지 전개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후손들이 농심있고 예절바른 자랑스런 농민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경문화를 나타내는 농기구, 옛 생활도구 등을 수집하고 엷는 것은 만들고 있는데 이는 옛 농경문화를 알리고 농업의 뿌리를 더듬어 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벚나무 묘목, 생강 재배 등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노인일감갓기사업을 계속하여 기금을 모아 노인회관을 건축해 농경문화 전시관과 예절교육장 등을 만들고 활력있는 노인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생활지도사가 마을에 출장을 나갈 때마다 노인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투나 윷놀이 아니면 우두커니 앉아 소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던 차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벗짚을 이용하여 사라져가는 옛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인회 자체 회의가 열려 누가 무엇을 만들지 작품 제작자를 결정하였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배워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작품 판매를 통해 적으나마 수입도 올렸고, 보는 이들에게 옛것에 대한 새로운 감회를 갖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전통적인 기술을 전수하는 기회도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노인들에게 소일거리가 되고 이를 통해 좀더 건강한 삶을 유도하였다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경남에서도 노인농악단을 조직하여 면민체육대회에도 참여하고, 한산대첩 기념대전에 면대표로 참석도 하고, 정월 대보름에 지신밟기를 하여 기금도 조성하는 등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농악단 조직이후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젊은 생활개선부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악 및 사물놀이를 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특히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농사일이 운동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고 건강관리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마을회관을 개조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건강관리교육 실시와 함께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식이요법, 적당한 운동, 건강관리실에 비치된 운동기구와 측정기구의 이용법 등에 관해 지도하였다. 또한 건강관리실은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전체가 이용하게 되었으며 마을 청소년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며 청소도 하게 되었다. 건강관리실 운영의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피로회복과 친목도모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소외감이 해소되었다는 응답도 다수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마을에서 노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보다는 농촌의 젊은이나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경북 한 마을에서는 노인회 기금 300만원으로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을 돕고, 또 군부대를 위문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열어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경로사상을 가르침으로써 자기중심적이고 서구화되어 가는 경향을 바로 잡고 있다. 이젠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한문교실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공간이 좁아 원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는 마을 청소 및 폐비닐, 농약병 수거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수집한 폐품을 판 돈을 모아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마을 복지시설에도 투자할 계획이며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서 교통정리 봉사도 하고, 효자·효부·열부·선형학생에 대한 시상도 하고 마을회관에 도서를 모아 비치하여 마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노력에 따라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의 활동을 반기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연적으로 세대간의 벽은 허물어 지고 정을 돈독히 하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노인들도 서로 새롭게 가까운 친구들로 사귀어 가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1년간의 노인생활지도사업의 몇몇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인교육, 일감맞기활동, 마을 봉사활동, 전통문화 전승활동 등을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 내고 그 안에서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며 삶에 활력을 찾아 가는 모습들을 보았고,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찾고, 젊은이들과 화합하여 흔들리고 있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고 발전시켜나갈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 앞으로의 추진방향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차년도 사업결과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농촌노인 생활지도 사업의 추진방향을 세워 보면 보건사회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의의 사회보장정책 등 제도적인 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촌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해 교육이나 사회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구체적인 사업은 공동부업활동, 교육활동, 건강증진활동, 봉사활동, 전통문화 전승활동, 취미활동, 오락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노인의 요구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추진사례를 통해 작은 하나의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노인활동이 활발하게 발전되는 것을 볼 때 현장의 생활지도사들과 노인들의 노력과 열의를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노인생활지도사업의 개괄적인 추진방향을 살펴 보았는데 앞으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인에게 맞는 부업의 발굴과 지도방법 개발,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촌 노인생활지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